

# 『澹軒集』의 存在與否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Existence of *Damheonjip*

朴文烈 (Park, Moon-Year)\*

## ◁ 목 차 ▷

- |                     |                       |
|---------------------|-----------------------|
| 1. 緒言               | 4. 『澹軒集』殘葉과 『頭陀草』의 校勘 |
| 2. 『澹軒集』의 存在與否      | 5. 結論                 |
| 3. 『澹軒集』과 『頭陀草』의 關係 | <參考文獻>                |

## < 초 록 >

본고는 조선시대 후기의 학자·장서가·저술가로서 지방문화발전에 공헌했던 담헌 이하곤(1677-1724)의 저술인 『澹軒集』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전례지는 『澹軒集』 잔엽 2매를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담헌의 행장과 『澹軒集』 잔엽 2매 및 종손 이정희의 증언을 통해서 고찰한 결과 지금까지 存目으로만 알려져왔던 『澹軒集』 10권 10책은 실제로 존재하였던 문집이며, 『澹軒集』은 『頭陀草』를 저본으로 하여 편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澹軒集』 잔엽 2매에 수록된 도합 691자의 내용은 『頭陀草』 제 14책과 제 15책을 중심으로 편차되었으나, 편차의 과정에서 저본과는 달리 29처의 改作이나 添補 등의 刪節을 통하여 편차된 것이었다.

要語 : 澹軒, 李夏坤, 『澹軒集』, 『頭陀草』, 宛委閣, 萬卷樓

\* 淸州大學校 人文大學 人文學部 文獻情報學專攻 教授 (parkmoon@cju.ac.kr)

접수일: 2004년 9월 6일 최초심사일: 2004년 9월 11일 심사완료일: 2004년 9월 18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ctual existence of *Damheonjip*(澹軒集), especially by analyzing the remaining 2 leaves of *Damheonjip* written by Lee Ha-Gon(李夏坤), Dam-Heon(澹軒). He was a scholar, book collector and writer in the later Chosun Dynasty and contributed much to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e.

Especially through the records of his biological chronology, the remaining 2 leaves of *Damheonjip*, and the testimony of Lee Jeong-Hui(李鼎熙), his 8th generation descendent, it is now confirmed that *Damheonjip*, which has been only known by its title, was actually compiled in 10 volumes. And, it is believed that *Damheonjip* was based on *Dutacho*(頭陀草), the collection of his writings.

The content of 691 Chinese characters which remained in 2 leaves of *Damheonjip* was compiled, based on volumes 14 and 15 of *Dutacho*, and 29 other places were revised or edited during its compilation.

Keywords : Dam-heon, Lee-Ha-Gon, *Damheonjip*, *Dutacho*, Wanwigak, Man-gwanru.

K C I

## 1. 緒言

조선시대 후기의 문신·학자였으며 藏書家였던 澹軒 李夏坤(1677~1724)의 저술은 정확히 몇 종이며 어느 정도의 수량인지 자세히 알 수 없다<sup>1)</sup>.

담헌의 저술은 주로 宛委閣<sup>2)</sup>에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완위각은 현재의 忠北 鎭川郡 草坪面 龍亭里 399번지 陽村에 위치한 담헌의 藏書閣이었으나, 지금은 허물어진 瓦家 한 채만 남아 있을 뿐 宛委閣址는 발농사에 쓰이고 있다.

각종 서목에서 담헌의 저술로 나타나는 『頭陀草』<sup>3)4)5)</sup>와 『澹軒先生遺稿』<sup>6)</sup> 및 『先世遺事』<sup>7)</sup> 등에 관하여는 필자가 이미 고찰한 바 있다. 그 결과는 현재까지 담헌의 저술로는 『頭陀草』 18책과 『先世遺事』 乾·坤 2책이 전존하며, 또한 『頭陀草』는 『先世遺事』를 저본으로 편찬되었던 점이 확인되었다.

반면 담헌의 아들 雲軒 李錫杓가 지은 <澹軒行狀>에 의하면 담헌의 저술로 “文集 10卷이 있어 家藏되고 있다”<sup>8)</sup>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담헌 저술의 가장 핵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澹軒集』의 존재여부는 물론 행방도 확인할 길이 없

- 1) 拙稿, 『澹軒 李夏坤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서울: 書誌學會, 第25輯(2003). pp.263~281.>를 參看할 것.
- 2) 세상 사람들은 澹軒의 宛委閣을 萬卷樓라고도 불렀던 듯하다.
- 3) 尹炳泰,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大韓民國 國會圖書館, 1968.) p.992.  
頭陀草. 李夏坤 著. 『寫本』 18冊. 國立.
- 4) 李相殷, 『古書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87.) p.754.  
頭陀草. 李夏坤(朝鮮) 著. 寫本(稿本). 不分卷18冊. 國立. 韓-220. 韓-46- 7484.
- 5) [http://www.nl.go.kr/main.php?top=02&main=search/new\\_search/search/TotalSearch\\_Brief.php](http://www.nl.go.kr/main.php?top=02&main=search/new_search/search/TotalSearch_Brief.php)의 檢索結果  
頭陀草 / 李夏坤 著. 筆寫本(稿本). ([刊寫地未詳]: [刊寫者未詳], [刊寫年未詳].) 不分卷18冊: 四周雙邊 半郭 22.0×14.6cm, 10行20字 註雙行, 內向一葉花紋魚尾; 30.7×19.1cm. 古朝46. 韓貴古朝46-가484. 貴重本書庫. 印刷資料(冊子型).
- 6) 尹炳泰,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大韓民國 國會圖書館, 1968.) p.964.  
澹軒先生遺稿. 李夏坤 著. 寫本. 2冊. 國立.
- 7) 李相殷, 『古書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87.) p.1184.  
先世遺事. 李夏坤(朝鮮) 著. 寫本. 2冊. 30.5×20.5cm. 國立. 韓-44- 748.
- 8) 李錫杓 著, 先稿. 筆寫本. ([鎭川]: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先府君行狀條.  
……有文集十卷藏于家.

었다.

2003년 정월 『澹軒集』의 존재와 관련된 2매의 낱장자료를 입수한 필자는 『澹軒集』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뒤 여러 경로로 『澹軒集』의 행방을 확인 하였으나, 끝내 『澹軒集』의 소재는 파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필자가 입수한 2매의 낱장자료와 『頭陀草』 全18冊에 나타나는 몇 가지의 기록을 근거로 『澹軒集』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考究하고자 한다.

## 2. 『澹軒集』의 存在與否

담헌의 아들 雲軒 李錫杓가 지은 <澹軒行狀>에 의하면 담헌의 저술로 “文集 10卷이 있어 家藏되고 있다”<sup>9)</sup>고 기록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지금까지 필자는 『澹軒集』이 存目으로만 전해지는 서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것은 담헌 저술의 가장 핵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澹軒集』을 여러 각도로 검색하고 찾았어도 존재여부는 물론 행방도 확인할 길이 없었던 때문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필자는 담헌의 8대 종손인 李晶熙家에서 『澹軒集』으로 판단되는 2매의 낱장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澹軒集』은 분명히 존재하였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확인된 『澹軒集』 낱장 2枚의 書誌事項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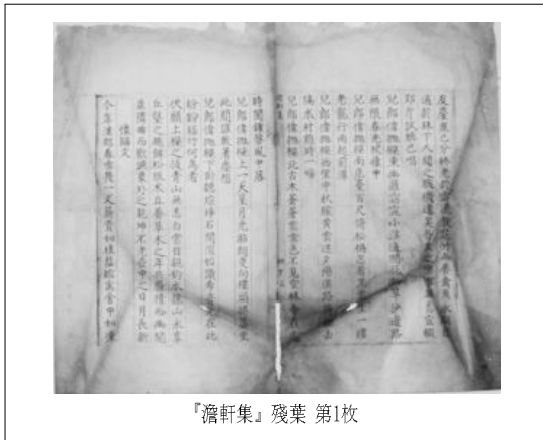
澹軒集 / 李夏坤 著. - 手筆稿本. - [鎭川] : [宛委閣], [1677~1724]寫.

2枚(낱장) : 四周雙邊, 半郭 21.0 × 14.5 cm 界線,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 二葉花紋魚尾 ; 29.0 × 19.0 cm 楮紙 線裝

이는 『澹軒集』의 존재를 규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담헌의 8대 종손인

9) 李錫杓 著, 先稿. 筆寫本. ([鎭川] : [筆寫者未詳], [筆寫年未詳].) 先府君行狀條.  
……有文集十卷藏于家.

李晶熙의 회고에 의하면, 그가 어렸을 적의 기억으로는 “당시에는 잘 몰랐으나 지금에야 생각하면 『澹軒集』은 그 수량이 여러 책이었던 듯하다”고 하였다.



『澹軒集』殘葉 第1枚



『澹軒集』殘葉 第2枚

〈寫眞 1〉『澹軒集』殘葉 書葉 10)

10) ① 第1殘葉의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21.0×14.5cm이며 界線이 있다. 每半葉의 行字數는 10行 20字이며 註는 雙行이었던 듯하다. 版心에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있고 上魚尾 위에는 '澹軒集'이라는 版心題가 있으며, 下魚尾 위에는 四十三이라는 張次가 있다. 책의 크기는 29.0×19.0cm이며 紙質은 楮紙이다.

② 第2殘葉의 邊欄은 四周雙邊이고 半郭의 크기는 21.0×14.5cm이며 界線이 있다. 每半葉의 行字數

그 후 지금의 잔엽 2매만이 이리저리 뒹굴다가 전존되고 있을 뿐 그 나머지는 없어지고 말았다고 한다. 전존되는 2매의 잔엽은 별도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여러 책 중에서 뜯어낸 것이라 하였다.

### 3. 『澹軒集』과 『頭陀草』와의 關係

『澹軒集』의 존재여부는 『澹軒集』 2매의 잔엽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의 내용과 『澹軒集』 편찬의 저본이 되었던 『頭陀草』의 해당 문장의 내용과 구체적으로 비교할 때 더욱 명확해진다.

전반적으로 볼 때, 『澹軒集』 잔엽 제1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은 『頭陀草』 第14冊에 수록되어 있는 <息影亭上梁文><sup>11)</sup>과 『頭陀草』 第15冊에 수록되어 있는 <懷歸文><sup>12)</sup>의 일부이며, 『澹軒集』 잔엽 제2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은 『頭陀草』 第15冊에 수록되어 있는 <喻或><sup>13)</sup>의 일부이다.

#### 3.1 『澹軒集』 殘葉 第1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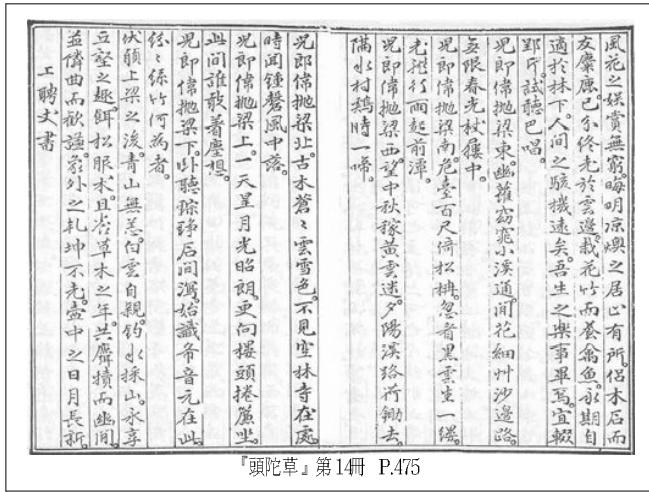
『澹軒集』 잔엽 제1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은 『頭陀草』 第14冊에 수록되어 있는 <息影亭上梁文>과 『頭陀草』 第15冊에 수록되어 있는 <懷歸文>의 일부이다.

『頭陀草』에 나타나는 해당부분의 사진과 『澹軒集』 잔엽 제1매의 내용을 보면

는 10行 20字이며 註는 雙行이었던 듯하다. 版心에는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가 있고 上魚尾 위에는 '澹軒集'이라는 版心題가 있으며, 下魚尾 위에는 '四十五'라는 張次가 있다. 책의 크기는 29.0×19.0㎝이며 紙質은 楮紙이다.

- 11) 李夏坤 著, 頭陀草. 影印本.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第191冊 所收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9) p.475 上段 前面 第2行에서 後面 第9行까지를 參照할 것.
- 12) 李夏坤 著, 頭陀草. 影印本.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第191冊 所收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9) p.495 上段 前面 第6行과 第7行을 參照할 것.
- 13) 李夏坤 著, 頭陀草. 影印本.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第191冊 所收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9) p.501 上段 前面 第10行에서 下段 前面 第9行까지를 參照할 것.

다음과 같다.



〈寫眞 2〉『澹軒集』殘葉 第1枚 內容의 『頭陀草』書影<sup>14)</sup>

『澹軒集』 잔엽 제1매에 수록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4) 李夏坤 著, 頭陀草. 影印本.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第191冊 所收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9)  
 p.475 上段 前面 第2行에서 後面 第9行까지와 p.495 上段 前面 第6行과 第7行을 參照할 것.

【息影亭上梁文】

.....

- [A01] 友麋鹿已分終老於雲邊栽花竹而養禽魚永期自
- [A02] 適於林下人間之駭機遠矣吾生之樂事畢焉宜輟
- [A03] 郢斤試聽巴唱
- [A04] 兒郎偉拋樑東幽蘿窈窕小溪通閒花細草沙邊路
- [A05] 無限春光杖屨中
- [A06] 兒郎偉拋樑南危臺百尺倚松梢忽看黑雲生一縷
- [A07] 老龍行雨起前潭
- [A08] 兒郎偉拋樑西望中秋稼黃雲迷夕陽溪路荷鋤去
- [A09] 隔水村鷄時一啼
- [A10] 兒郎偉拋樑北古木蒼蒼雲雪色不見空林寺在處

- [B01] 時間鍾磬風中落
- [B02] 兒郎偉拋樑上一天星月光昭朗更向樓頭捲簾坐
- [B03] 此間誰敢著塵想
- [B04] 兒郎偉拋樑下臥聽琮瑋石間瀉始識希音元在此
- [B05] 紛紛絲竹何爲者
- [B06] 伏願上樑之後青山無恙白雲自親釣水採山永享
- [B07] 丘壑之趣餌松服朮且養草木之年共麴糶而幽閒
- [B08] 並隣曲而歡讌象外之乾坤不老壺中之日月長新
- [B09] **懷歸文**
- [B10] 今年漢都春雪幾一丈薪貴如桂瑟縮寓舍中如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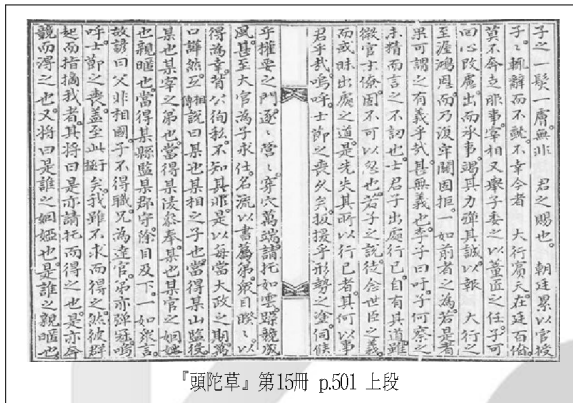
이상에서 『澹軒集』 잔엽 제1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은 『頭陀草』 第14冊에 수록되어 있는 <息影亭上梁文>의 후반부에서 전제해온 147자와 『頭陀草』 第15冊에

수록되어 있는 <懷歸文>의 초반부에서 전제해온 23자 등 도합 291자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2 『澹軒集』 殘葉 第2枚

한편, 『澹軒集』 잔엽 제2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은 『頭陀草』 第15冊에 수록되어 있는 <喻或>의 일부이다.

『頭陀草』에 나타나는 해당부분의 사진과 『澹軒集』 잔엽 제2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寫眞 3> 『澹軒集』 殘葉 第2枚 內容의 『頭陀草』 書影<sup>15)</sup>

『澹軒集』 잔엽 제2매에 수록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喻或】

.....

- [A01] 君乎哉嗚呼士節之喪久矣扳援乎形勢之塗伺侯
- [A02] 乎權要之門逐逐營營穿穴萬端請托如雲躁競成
- [A03] 風甚至大官爲子求仕名流以書薦弟衆目睽睽以
- [A04] 得爲幸背公徇私不知其非是以每當大政之期萬
- [A05] 口譁然互相傳說曰某也某相之子也當得某山監
- [A06] 役某也某宰之弟也當得某陵參奉某也某官之姻
- [A07] 婭也親暱也當得某縣監某郡守除目及下一如衆
- [A08] 言故諺曰父非相國子不得職兄爲達官弟亦彈冠
- [A09] 嗚呼士節之喪盖至此于極矣我雖不求而得之然
- [A10] 彼羣起而指摘我者其將曰是亦請托而得之也是

- [B01] 亦奔競而得之也又將曰是誰之姻婭也是誰之親
- [B02] 暱也是何從而得此乎我甘受其侮辱縛帽束帶揚
- [B03] 揚奔趨則未知於世臣之義得也其於出處之道何
- [B04] 如哉至于董匠之任於義尤有不安者何者今之陞
- [B05] 遷之捷徑者輒曰監造官監造官爭之者碎首而不
- [B06] 顧我既累辭於洗馬教官而不辭於監造官是則薄
- [B07] 彼之久滯而利此之速遷也此何異於辭萬而取十
- [B08] 萬者乎進退無所據取舍失其當羣譟衆議并與向
- [B09] 之累辭者而疑之傳曰丈夫爲行不使人疑之我若
- [B10] 屈首於今日則又何必力辭於曩時也哉噫我使處

.....

---

15) 李夏坤 著, 頭陀草, 影印本,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第191冊 所收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9) p.501 上段 前面 第10行에서 下段 前面 第9行까지를 參照할 것 .

이상에서 『澹軒集』 잔엽 제2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은 『頭陀草』 第15冊에 수록되어 있는 <喩或>의 중반부에서 전제해온 400자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澹軒集』 잔엽 제1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은 『頭陀草』 第14冊에 수록되어 있는 <息影亭上梁文>의 후반부와 『頭陀草』 第15冊에 수록되어 있는 <懷歸文>의 초반부에서 전제해온 291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澹軒集』 잔엽 제 2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은 『頭陀草』 第15冊에 수록되어 있는 <喩或>의 중반부에서 전제해온 400자가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잔존하는 『澹軒集』은 2매의 잔엽 뿐이며, 2매의 잔엽에 수록된 글자수도 도합 691자에 불과한 것이다.

#### 4. 『澹軒集』 殘葉과 『頭陀草』와의 校勘

『澹軒集』의 편찬에 『頭陀草』가 과연 그 저본으로 사용되었는가의 관계는 『澹軒集』 잔엽 2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의 내용과 『頭陀草』에 수록된 해당 문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교감한다면 더욱 명확해지는 것이다.

『澹軒集』 잔엽 2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의 내용을 『頭陀草』의 해당 문장의 내용과 대비하여 교감하면 다음과 같다.

##### 4.1 『澹軒集』 殘葉 第1枚의 校勘

『澹軒集』 잔엽 제1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의 내용을 『頭陀草』에 수록된 해당 문장의 내용과 대비하여 교감하면 다음과 같다.

友麋鹿已分終老於雲邊栽花竹而養禽魚永期自  
適於林下人間之駭機遠矣吾生之樂事畢焉宜輟  
郢斤試聽巴唱

兒郎<sup>16)</sup>偉拋樑<sup>17)</sup>東幽蘿窈窕小溪通閒花細草<sup>18)</sup>沙邊路  
無限春光杖屨中

兒郎<sup>19)</sup>偉拋樑<sup>20)</sup>南危臺百尺倚松栢忽看黑雲生一縷  
老龍行雨起前潭

兒郎<sup>21)</sup>偉拋樑<sup>22)</sup>西望中秋稼黃雲迷夕陽溪路荷鋤去  
隔水村鷄時一啼

兒郎偉拋樑<sup>23)</sup>北古木蒼蒼<sup>24)</sup>雲雪色不見空林寺在處

時間鍾磬風中落

兒郎<sup>25)</sup>偉拋樑<sup>26)</sup>上一天星月光昭朗更向樓頭捲簾坐  
此間誰敢著<sup>27)</sup>塵想

兒郎<sup>28)</sup>偉拋樑<sup>29)</sup>下臥聽琮琤石間瀉始識希音元在此  
紛紛<sup>30)</sup>絲竹何爲者

伏願上樑<sup>31)</sup>之後青山無恙白雲自親釣水採山永享

16) 郎：『頭陀草』作卽

17) 樑：『頭陀草』作梁

18) 草：『頭陀草』作艸

19) 郎：『頭陀草』作卽

20) 樑：『頭陀草』作梁

21) 郎：『頭陀草』作卽

22) 樑：『頭陀草』作梁

23) 樑：『頭陀草』作梁

24) 蒼蒼：『頭陀草』作蒼 "

25) 郎：『頭陀草』作卽

26) 樑：『頭陀草』作梁

27) 著：『頭陀草』作着

28) 郎：『頭陀草』作卽

29) 樑：『頭陀草』作梁

30) 紛紛：『頭陀草』作紛 "

31) 樑：『頭陀草』作梁

丘壑之趣餌松服朮且養草木之年共麝續而幽閒  
並隣<sup>32)</sup>曲而歡譙象外之乾<sup>33)</sup>坤不老壺中之日月長新

懷歸文

今年漢都春雪幾一丈薪貴如桂瑟縮寓舍中如凍

『澹軒集』 잔엽 제1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의 내용을 『頭陀草』에 수록된 해당 문장의 내용과 대비한 결과 도합 18처에서 자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장 내용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頭陀草』에서의 자구를 수정하여 전제한 『澹軒集』 잔엽 제1매의 내용이 보다 精緻로움을 알 수 있다.

이는 『澹軒集』이 『頭陀草』를 저본으로 편찬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4.2 『澹軒集』 第2枚 殘葉의 校勘

『澹軒集』 잔엽 제2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의 내용을 『頭陀草』에 수록된 해당 문장의 내용과 대비하여 교감하면 다음과 같다.

君乎哉嗚呼士節之喪久矣振援乎形勢之塗伺侯<sup>34)</sup>  
乎權要之門逐逐<sup>35)</sup>營營<sup>36)</sup>穿穴萬端請托如雲蹀競成  
風甚至大官爲子求仕名流以書薦弟衆目睽睽<sup>37)</sup>以  
得爲幸背公徇私不知其非是以每當大政之期萬  
口譁然互相傳<sup>38)</sup>說曰某也某相之子也當得某山監

32) 隣 : 『頭陀草』作隣  
33) 乾 : 『頭陀草』作扎  
34) 侯 : 『頭陀草』作候  
35) 逐逐 : 『頭陀草』作逐 .  
36) 營營 : 『頭陀草』作營 .  
37) 睽睽 : 『頭陀草』作睽 .  
38) 相傳 : 『頭陀草』作小字 .

役某也某宰之弟也當得某陵參奉某也某官之姻  
 婭也親暱也當得某縣監某郡守除目及下一如衆  
 言故諺曰父非相國子不得職兄爲達官弟亦彈冠  
 嗚呼士節之喪蓋至此于極<sup>39)</sup>矣我雖不求而得之然  
 彼羣<sup>40)</sup>起而指摘我者其將曰是亦請托而得之也是

亦奔競而得<sup>41)</sup>之也又將曰是誰之姻婭也是誰之親  
 暱也是何從而得此乎我甘受其侮辱縛帽束帶揚  
 揚<sup>42)</sup>奔趨則未知於世臣之義得<sup>43)</sup>也其於出處之道何  
 如哉至于董匠之任於義尤有不安者何者今之陞  
 遷之捷徑者輒曰監造官監造官爭之者碎首而不  
 顧我既累辭於洗馬教官而不辭於監造官是則薄  
 彼之久滯而利此之速遷也此何異於辭萬而取十  
 萬者乎進退無所據取舍失其當羣<sup>44)</sup>譎衆議并與向  
 之累辭者而疑之傳曰丈夫爲行不使人疑之我若  
 屈首於今日則又何必力辭於曩時也哉噫我使處

『澹軒集』 잔엽 제2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의 내용을 『頭陀草』에 수록된 해당 문장의 내용과 대비한 결과 도합 11처에서 자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장 내용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頭陀草』에서의 자구를 수정하여 전제한 『澹軒集』 잔엽 제2매의 내용이 보다精緻로움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澹軒集』이 『頭陀草』를 저본으로 편찬된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39) 于極：『頭陀草』作小字.

40) 羣：『頭陀草』作群.

41) 得：『頭陀草』作得.

42) 揚揚：『頭陀草』作揚 ”.

43) 得：『頭陀草』作得.

44) 羣：『頭陀草』作群.

## 4.3 『澹軒集』 殘葉에 나타나는 문장의 刪節

『澹軒集』 잔엽 2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의 내용과 『頭陀草』에 수록되어 있는 해당 문장 내용의 교감을 통하여 그 산절의 양상을 살펴본다면 『澹軒集』과 『頭陀草』와의 관계는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澹軒集』 잔엽 2매에 수록된 문장을 『頭陀草』의 그 해당 부분과의 산절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1〉 『澹軒集』 殘葉과 『頭陀草』와의 原文內容의 刪節

番號	『澹軒集』 殘葉		『頭陀草』	類 型	備 考
	面 行	內 容	內 容		
01	1A 04	郎	郎	改作	
02	1A 04	樑	梁	異字	
03	1A 04	草	艸	異字	
04	1A 06	郎	郎	改作	
05	1A 06	樑	梁	異字	
06	1A 08	郎	郎	改作	
07	1A 08	樑	梁	異字	
08	1A 10	樑	梁	異字	
09	1A 10	蒼蒼	蒼 "	重疊	
10	1B 02	郎	郎	改作	
11	1B 02	樑	梁	改作	
12	1B 03	著	着	改作	
13	1B 04	郎	郎	改作	
14	1B 04	樑	梁	異字	
15	1B 05	紛紛	紛 "	重疊	
16	1B 06	樑	梁	異字	

17	1B 08	隣	隣	改作
18	1B 08	乾	扎	改作
19	2A 01	侯	候	改作
20	2A 02	逐逐	逐 "	重疊
21	2A 02	營營	營 "	重疊
22	2A 03	睽睽	睽 "	重疊
23	2A 05	相傳	小字	本文化
24	2A 09	于極	小字	本文化
25	2A 10	羣頭	群	添補
26	2B 01	得	溥	改作
27	2B 03	揚揚	揚 "	重疊
28	2B 03	得	溥	異字
29	2B 08	羣	群	異字

이상에서 『澹軒集』 잔엽 2매에 수록된 문장을 『頭陀草』의 그 해당 부분과의 산  
 절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澹軒集』은 『頭陀草』의 문장을 저본으로 그것을 刪節하  
 여 編次 한 것으로 판단된다.

〈表 2〉 刪節의 類型

類 型	改 作	異 字	重 疊	本文化	添 補	合 計	備 考
合 計	11	9	6	2	1	29	
比 率	38%	31%	21%	7%	3%	100%	

또한 刪節의 유형은 크게 改作, 異字, 重疊, 本文化, 添補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  
 고 있다. 도합 29처의 刪節件數 중에서 改作은 11건(38%), 異字는 9건(31%), 重疊  
 은 6건(21%), 本文化는 2건(7%), 添補는 1건(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을 통하여 볼 때 『頭陀草』가 『先世遺事』를 저본으로 編次 되었던 점<sup>45)</sup>을 감  
 안 한다면 『澹軒集』은 다시금 『頭陀草』를 저본으로 하여 편차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澹軒集』의 초고본이 『先世遺事』이고 재고본이 『頭陀草』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담헌 이하곤의 『澹軒集』은 2차의 산질을 거쳐서 編次 되었던 것이다.

## 5. 結 論

이상에서 담헌 이하곤의 저술인 『澹軒集』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고찰한 바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1) 澹軒 李夏坤(1677~1724)은 조선시대 후기의 장서가요 저술가였으며, 그의 저술은 대부분 그의 藏書處였던 宛委閣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2) 澹軒의 저술로는 『선세유사』와 『頭陀草』 및 『澹軒集』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澹軒集』의 존재여부에 관하여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었다.

(3) 지금까지 『澹軒集』은 存目으로만 알려져 왔으나 최근 『澹軒集』의 잔엽으로 판단되는 2매의 낱장자료의 확인과 그의 8대 종손인 李晶熙의 회고를 종합한 결과 『澹軒集』의 존재는 확실한 것이었다.

(4) 확인된 2매의 낱장자료를 바탕으로 추정된 『澹軒集』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澹軒集 / 李夏坤 著. - 手筆稿本. - [鎭川] : [宛委閣], [1677~1724]寫.  
10卷10冊 : 四周雙邊, 半郭 21.0 × 14.5 cm, 界線, 10行20字 註雙行,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 29.0 × 19.0 cm 楮紙. 線裝.

(5) 『澹軒集』 잔엽 제1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은 『頭陀草』第14冊에 수록되어 있는 <息影亭上梁文>과 『頭陀草』第15冊에 수록되어 있는 <懷歸文>의 일부이

45) 拙稿, 澹軒 李夏坤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서울, 書誌學會, 第24輯(2003). pp.263~281.>를 參看할 것.

며, 『澹軒集』 잔엽 제2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은 『頭陀草』 第5冊에 수록되어 있는 <喩或>의 일부이다.

(6) 『澹軒集』 잔엽 2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의 자수는 도합 691자에 불과하다.

(7) 『澹軒集』 잔엽 2매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의 내용과 『頭陀草』에 수록된 해당 문장의 내용을 대비한 결과 도합 29처에서 자구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문장 내용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頭陀草』보다는 『澹軒集』 잔엽 2매에 수록된 내용이 더精緻함을 볼 때, 『澹軒集』은 『頭陀草』를 저본으로 편찬된 것이다.

(8) 『澹軒集』 잔엽 2매에 수록된 문장을 『頭陀草』의 그 해당 부분과 산절의 유형을 살펴본 결과, 刪節의 유형은 도합 29처의 刪節件數 중에서 改作은 11건(38%), 異字는 9건(31%), 重疊은 6건(21%), 註文의 本文化는 2건(7%), 添補는 1건(3%)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 <參考文獻>

- 朴文烈, 「澹軒 李夏坤의 生涯와 著述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25輯, 서울: 書誌學會, 2003.
- 尹炳泰,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大韓民國 國會圖書館, 1968.
- 李相殷, 『古書目錄』, 서울: 保景文化社, 1987.
- 李錫杓 著, 先稿. 筆寫本. [鎭川]: [宛委閣], [1724 ~1751寫].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先府君行狀條.
- 李夏坤 著, 頭陀草. 影印本. 1冊.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 191所收. 서울: 民族文化推進黨, 1997.
- 李夏坤 著, 頭陀草. 李錫杓手筆稿本. 不分卷18冊. [鎭川]: [宛委閣], [1724~1751寫].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古朝 46. 韓貴古朝 46-가 484.
- 李夏坤 著, 先世遺事. 李夏坤手筆稿本. 不分卷2冊. [鎭川]: [宛委閣], [1677~1724寫]. 國立中央圖書館所藏本. 韓-44-가48.